

농업계 오랜 쟁점중 하나인 농업 신용사업(금융)과 경제사업(농산물 생산지원·유통) 분리 문제가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협이 지난달 30일 농림부에 제출한 신경분리 추진계획서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농업인에게 실적이 돌아갈 수 있는 여부에 있다. 그러나 신용·경제사업 분리가 금융계 관도에도 적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농협 信·經 분리'

시너지 감소·3兆 필요... 힘로 예고

농업인에 '實益' 돌아가느냐가 핵심
종합금융그룹 변모... 금융계도 촉각

자본으로 보고 BIS 비율을 계산하고 있지만 자본금 확충없이 신·경 분리가 되면 신용부문 자본금이 크게 떨어지게 때문이다. 지자체 금고에서 차지하고 있는 압도적인 위상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일반회계 기준으로 250개 지자체 중 농협은 172개 지자체와 금고계약을 맺고 있으며, 농협중앙회 총예수입금에서 금고 비중도 33%에 이르고 있다. 이는 금고선정 기준에서 25% 비중에서 이르는 '지역사회기여도' 부문에서 신용사업을 기반으로 경제사업을 꾸준히 지원해온 농협이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경 분리로 신용부문과 경제사업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면 금고유치에 있어 농협만의 강점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이밖에 교육지원사업과 경제사업 손실보전을 통해 이뤄진 연간 1천400여억원의 법인세 절감효과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농협 "아직은 시기상조"=정작 당사자인 농협측은 신·경 분리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경을 분리하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신용부문 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경제사업의 부실이 커지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분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용부문을 일반 상업은행으로 바꾸는 것은 신용사업의 협동조합 성격을 무시하고 농협의 설립목적인 농·농민의 실익을 위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상반기 쌀값 10년래 최저

20kg 평균 3만5,768원

쌀값이 2개월째 상승했다. 그러나 지난해 수확기에 급락한 이후 수입쌀의 밥쌀용 유통 등 영향으로 상승폭은 제한적이어서 올해 상반기 평균가는 10년래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2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쌀 도매가(상품 20kg 기준)는 1월 평균 3만6천원에서 4월 3만5천130원까지 떨어졌 뒤 5월 3만5천400원에 이어 6월에는 3만6천262원으로 올랐다.

지난 6월 도매가격은 지난해 동월에 비해 9.3% 낮은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올해 1~6월 단순 평균가는 3만5천768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0.6% 낮으며 이는 1996년(3만4천784원) 이후 10년만의 최저치다.

소비자 가격도 1월 4만3천47원 이후 5월 4만1천918원까지 떨어진 뒤 6월 4만2천169원으로 올랐으나 올해 상반기 단순 평균가는 4만2천408원으로 지난 1998년(3만9천969원)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정부 재고미 등 쌀이 만성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데다 값싼 수입쌀의 유통도 시장심리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공매를 통해 팔리는 미국산 밥쌀용 1등급 쌀의 입찰가는 20kg짜리가 2만원에 불과하고 중국산도 2만5천원 안팎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현대차·기아차 등 산별노조 전환 국내 산업계 파장 클 듯

국내 최대의 단일노조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GM대우 등의 노조가 지난달 30일 산별노조 전환을 가결함에 따라 자동차 업계에 비롯해 그동안 각종 약제에 시달려온 국내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노동계에서 이들 업체 노조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상징성 등을 감안할때 이번 결정은 여타 국내 산업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가뜰이나 원·달러 환율하락과 유가상승, 내수침체로 인한 판매 부진, 수익성 악화 등의 산적한 악재로 신음해온 기업들에게 '설상가상'의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경영계와 경제단체들은 기업별 노조의 산별노조 전환으로 향후 노사관계에서 노조의 입김이 더욱 강해지고 파업이 잦아지면서 손실이 커질 것이라고 일제히 우려감을 표명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산별노조의 장점보다는 무분별한 파업의 가능성이 커지고 중앙단위와 개별사업장에서 이종, 삼종의 교섭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노사간 협상과정에서 노조가 강력한 교섭력을 토대로 사측을 무리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노사간 협상대상 이외의 사안들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입장을 강요하는 등의 사태가 빈발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산별노조로 전환되면 단체교섭과 파업 등의 단체행동이 모두 중앙의 책임과 지침에 따라 이뤄져 기업별 노조보다 강력한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다.

노동계는 산별노조 전환으로 조합원들의 결집력이 높아지면서 사용자와 정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태국 물산전' 2일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열리고 있는 '태국 물산전'을 찾은 고객들이 태국 전통음식을 시식해보고 있다. 다양한 태국음식과 태국 전통 무용, 무에타이 시범 등으로 구성된 '태국 물산전'은 6일까지 계속된다. /연합뉴스

생명보험·손해보험 설계사 '교차판매' 8월말부터 허용

시행시기가 2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됐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설계사의 교차판매가 당초 예정대로 8월말부터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차판매제가 시행되면 생명보험 설계사는 1개 손해보험사, 손해보험 설계사는 1개 생명보험사의 상품을 더 팔 수 있게 된다. 이는 설계사가 1개 보험사에만 소속돼 영업할 수 있는 현행 전속제가 무너지는 계기가 된다.

2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교차판매제 시행시기를 2년 연기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주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예정대로 8월30일부터 교차판매가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학교급식법 등 5개 민생법안만 처리했기 때문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 재경위만 통과한 상태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교차판매가 경쟁을 과열시키고 설계사들의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시행시기의 연기를 요구해 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회가 이번엔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은 가을 정기국회에서 다룰 것으로 안다"며 "따라서 교차판매 제도는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8월말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설계사가 교차판매를 하겠다고 나설 경우 보험사들이 이를 막을 명분이 없어 마찰도 예상된다. /연합뉴스

올 수출 3,200억달러 전망

코트라, 수입바이어 231명 조사

올해 하반기에는 수출이 지난해에 비해 11% 증가해 올해 연간 수출이 3천2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2일 코트라(KOTRA)가 6월 19~28일 30대 수출대상국의 수입바이어 231명 및 주재상사 203개사를 통해 조사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6년도 하반기 수출이 11.1% 증가한 1천642억달러로 9개 반기 연속 10% 이상의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코트라는 원고, 고유가, 원부자재 가격상승 등 '3고' 악재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호조세 지속과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및 개도국 수출증가세, 한국 기업의 품질력 제고를 배경으로 올해 수출이 연초 예상보다 20억달러 초과한 3천2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 중국 수출은 중국정부의 긴축정책 영향력 완화추세와 관세인하 조치 등으로 16% 증가하고 인도 27%, 러시아 34%, 브라질 35% 증가 등 브릭스 시장이 하반기 전체 수출을 견인할 것으로 분석했다.

대 일본 수출은 엔화대비 원고에도 불구하고, 3% 전후에 달하는 일본의 안정적 경제성장으로 10% 전후의 수출증가가 예상된다. 또 독일 4%, 영국 8% 등 주요 선진국에 대한 수출은 5% 전후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대 미국 수출은 금리인상, 고유가 및 부동산 경기하락세, 원고, 중국과의 경쟁격화, 현지생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1% 전후의 감소세가 예상된다. /연합뉴스

시중銀, 우대금리 폐지 대출금리 인상

시중은행들이 기존에 적용하던 우대금리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대출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대출 규제도 촉발된 금리 인상 분위기의 연장선상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경우 CD(양도성예

금증서) 금리 상승과 맞물려 최근 한달간 0.60%포인트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3일부터 근저당권 설정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고객에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포인트 할인해주던 우대금리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근저당권 설정비를 고객이 부담하면 금리를 깎아줬지만 이제는 설정비는 설정비대로, 금리는 금리대로 받겠다는 것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우대금리를 폐지하는 것은 대다수 고객들의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대출금리 인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 관계자는 "7월부터 주요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해도 높아진 금리,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상황 때문에 대출수요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아파트 대출 환영

월 0.58% (年 7%)

시중은행대출과 같습니다.

정기예금 年 5.32%

무등저축은행

대표점: 함평오·이영만

T. (062) 223-5506

함평광역시 동구 함평로 412호-101(동대문로) 90

포스코, 광양에 車강판 생산라인 준공

연산 650만t 체제로 세계 2위 업체 '우뚛'

포스코는 지난달 30일 광양제철소에서 고급 자동차강판을 생산하는 6CGL(Continuous Galvanizing Line·아연도금강관라인)을 완공하고 이구택 회장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2004년 9월 공사 개시 이후 22개월만에 완공된 이 생산라인은 자동차용 강판으로 쓰이는 아연도금강판을 연간 40만t 가량 생산하게 된다.

포스코는 이번 생산라인의 준공으로

용융아연도금강판 210만t을 포함해 자동차용 강판 연산 총 650만t의 생산체제를 갖추어서 이르셀로에 이어 세계 2위의 자동차강판 업체로 자리잡게 됐다.

이번 라인에는 특히 냉연강판의 표면에 아연도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처리를 통한 합금방식으로 도금하기 때문에 내식성과 가공성이 뛰어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포스코는 그동안 광양제철소를 세계 최고의 자동차강판 전문 제철소로 육성키로 하고 1997년 연산 220만t 규모의 4냉연공장을 준공한 데 이어 2000년 4CGL, 2005년 5 CGL 공장을 각각 준공해왔다.

포스코는 2008년까지 총 1조6천억원 을 더 투자해 자동차강판 생산설비를 지

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함으로써 고급 자동차강판의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또 2004년 중국 추저우(蘇州), 올해 태국과 일본에 자동차강판 전문 복합가공센터를 가동한 데 이어 멕시코와 인도에도 가공센터를 건설중이며 동구와 중국·인도에 추가 신설을 검토하는 등 글로벌 생산체제 구축에도 주력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안전과 디자인이 중요해지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추세에 맞추기 위해 강판의 개발 초기부터 자동차사와 협력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휴로넷	[주5일]SK텔레콤(광주) 미납상담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7/03	02-780-9595
㈜시랑방유용	회계 및 경리 경력자	고졸/경력2년	회사내규	07/05	062-265-8900
㈜지에프텍	전자부품(PCB수리사, SMT OPERATOR)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7/06	062-946-0890
㈜코리아웨딩스쿨	사무보조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07	062-236-3536
정원교육문화(주)	정규직 회원관리/정원선생님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7/07	062-514-7900
(유)금레이티	내선전공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07	062-266-8504
㈜동일할강	출하업무, 문서관리, 영업지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08	062-944-8877
공전제과	매장관리/캐셔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7/10	062-222-3477
㈜국제컴퓨터아카데미	경력자 그래픽 강사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07/14	062-223-6123
㈜열린기획	방송초점기기설치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7/20	062-381-7730
㈜유빈주택건설	분양 계약 및 경리업무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7/20	062-673-8008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로도복권 (제187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01 02 08 18 29 38	42					
등위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1,544,733,900					
2등	5개 숫자 + 보너스 숫자 일치 94,852,082					
3등	5개 숫자 일치 1,438,300					
4등	4개 숫자 일치 60,295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팝콘복권 (제10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등	10억	2주	606421
		2주	606420
2등	5억원	2주	606422
3등	1천만원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4등	1백만원	각조	15488
5등	1만원	각조	415
		각조	03
		각조	75
		각조	9
7등	1천원	각조	5

경제계 인사

◆국세청
 ◇복수직 부이사관 전보 ▲광주청 조사2국장 김영근 ◇과장급 전보 ▲영동세무서장 노찬근 ▲광주청 남세지원국장 정호경 ▲광주청 세원관리국장 이영모 ▲광주청 조사1국장 박요주 ▲광주세무서장 김동균 ▲북광주세무서장 김영식 ▲서광주세무서장 김주현 ▲전주세무서장 이명희 ▲익산세무서장 이하운 ◇초임 과장·세무서장 전보 ▲군산세무서장 장남홍 ▲북전주세무서장 김문식 ▲여수세무서장 강성준 ▲순천세무서장 박희홍 ▲정읍세무서장 송우철 ▲남원세무서장 박흥순 ▲나주세무서장 강석원 ▲해남세무서장 심정수